

## 李星湖와 藿憂錄(三)

鄭寅普

星湖만큼 黨禍의 誤國을 痛歎한 이가 없다. 그러나 누구나 다가티 至大, 至久, 至難言으로 아는 朝鮮黨爭을 星湖는 容易히 그 弊窟을 發見하고 또 서슴지 아니하고 그 掃蕩策을 質言하였다. 均田論은 그래도 博考한배나 잇슬지나 이 한 篇으로 말하면 더욱이 星湖의 獨見이다 이제 이를 節錄하여보던

朋黨, 生於爭鬪, 爭鬪, 生於利害, 利害切, 其黨深, 利害久, 其黨固, 勢使然也, 何以明其然也, 今有十人共飢, 一孟而駢匕, 不終器而鬪起, 詰之則有言欠遜者, 人皆信鬪由言起, 佗日, 又一孟而駢匕, 不終器而鬪起, 詰之則有貌欠恭者, 人皆信鬪由貌起, 佗日又如此詰之則有動作多妨者, 遂乃一倡而衆和, 始細而終大, 其談沫吻, 其怒裂眦, 何其過也, 察於行道之間, 來者掉臂, 去者起武, 其言欠遜, 貌欠恭, 動作多妨者, 何限, 曾不有泔泔之鬯, 若向之同孟飯者, 於是, 知其鬪之在飯, 不在言貌動作也, 責其末者, 見其由言, 則曰, 遜, 無此矣, 見其由貌, 則曰, 恭, 無此矣, 殊不知利害之源猶在, 將不勝救矣, 假使今日, 同孟而鬪, 明日, 各案而飽, 去其所由鬪, 則彼一時訾詆之鬯, 將見貼然息而無復餘噴矣, 故妻妾鬪於室, 必有一非, 然其非未必使之至此, 寵有所未遍也, 兄弟鬪於牆, 必有一非, 然其非未必使之至此, 財有所未贍也, 國之朋黨, 何異於是,(中略)我國, 自中世以來, 奸壬用事, 士禍相繼, 前有戊午甲子之戮, 後有己卯乙巳之殘, 一時忠賢, 駢死於洪流, 猶未有朋黨之號, 自宣廟以來, 一分爲二, 二分爲四, 四又分爲八, 世傳雲仍, 仇賊殺死, 同朝而進, 並巷而居, 有至老死, 不與往來, 故吉凶相及, 則竊竊然咻之, 婚姻相通, 則羣聚而擯攻, 至於言動服飾, 別成貌樣, 遇諸塗, 可指點而認, 異域而已, 殊俗而已, 噫其甚矣(中略)夫利一而人二, 則便成二黨, 利一而人四, 則便成四黨, 利不移而人益衆, 其十朋八黨, 宜乎愈歧也, 設使盡斥羣朋, 惟專一黨, 彼亦非鑄鐵鎔金, 必將有何來一尖刃, 八三裂五矣, (中略)然則如之何其可也, 簡科舉, 防雜進也, 明考課, 汰茸鬪也, 然後惜名宦毋多與也, 慎陞超毋輕擢也, 務稱材毋數遷也, 使利竇塞而民志定也, 如是而已矣不然雖殺之不禁

이라 하였다. 朝鮮의 黨爭이란 名義로써 干櫓를 삼아가지고 이러나는 법이  
 라.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이 모다 名義로써 功陷하는 것 인대 星湖는 明智士  
 이라. 그의 隱伏한 □妥— 사로 그바이잇슴을 밝히 아라. 利의 一字로써 紛紜  
 한 是非를 蕩□하였다. 黨中에 나서 黨中에 자라고 黨禍에 摧折되고 黨國에  
 서 終老한이로서 이가티 觀察이 明公함은 참으로 未曾有의 일이라 아니할  
 수 업고, 또 그의 學問이 實事求是의 根柢를 가진 싸담으로 저질로 法家와  
 彷彿한바이잇서 첫재 考課에 置重하야 浮名, 虛譽로 하야금 容足の 餘地가  
 업게 하라 함이니, 이 實로 宰世의 資才잇슴을 徵할만한 것이다. 星湖의 沒  
 世한뒤로 老黨으로 詩, 僻과 南黨으로 蔡, 洪과 小黨으로 芳出한 蕩平一派와  
 內□이 모다 星의 豫策의 틀리지 아니 하였다. 애슬푸다 利로써 黨을 하나  
 利의 原되는 根基가 震蕩되매 艱辛히 締構해논 그 所謂利라는 것이 마춤내  
 어대 依附해 存全하야 잇는가. 그럼으로 學問이 實을 求하고 政法이 績을 責  
 하는 쎄에는 己利만 생각하야도 決코 黨禍—저다지 沈痼치 아니 하얏슬 것이  
 다. 星湖의 朋黨, 均田二論으로만 미루어 보아도 그의 生平憂念이 얼마나 篤  
 摯하얏슴을 더욱이 늦기지 아니할 수 업다.(今月 中仁寺洞文光書林에서 新刊  
 한 星湖僿說의 附刊된 星湖藹憂錄 參照)